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정월 15일에 동제(洞祭)를 올리고 있다.

2) 월송포(越松浦)

월송정(越松亭) 앞바다를 말하며, 현재의 월송정주차장 부근에 만호(萬戶)와 수군(水軍)이 주둔하면서 왜적을 막았다고 한다.

5. 전설

1) 금반정(金盤井)

금반석(金盤石) 같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솔밭, 솔머리, 송두(松頭)

월송정의 울창한 솔밭 입구에 있다 하여 불린 이름이라고도 하며, 옛날 만호(萬戶)란 벼슬을 한 사람이 이곳을 개척할 때 붙인 지명으로 전한다.

3) 정자리(亭子里)

월송마을 7번국도 동쪽에 있는 월송송림(月松松林) 남쪽 언덕 밑에 있는 부락으로 정자[월송정]가 있다 하여 정자리(亭子里)라 부른다. 옛날 정자리 부근은 거의 솔밭이고, 바닷물과 남대천물이 밀려 들어온 곳이었으나, 1891년의 대홍수(大洪水)로 솔밭이 유실(流失)되고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과 같은 월송들이 생겼다 한다.

제9절 월송3리(月松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북쪽은 황보(黃堡)들이 있고, 오곡계곡(梧谷溪谷)의 냇물이 황보천(黃堡川)과 합류하여 군무봉(軍舞峰) 옆을 지나 동해로 흐르고 있다. 동쪽은 월송송림과 월송정, 월송평야가 있으며, 월송2리와 접하였고, 일출봉(日出峰) 지맥(支脈)을 뒤로한 동향의 마을이다. 마을회관

은 198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월송리가 분구(分區)됨에 따라 월송3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월송3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208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황씨(平海黃氏)와 정선 전씨(旌善全氏), 안동 김씨(安東金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음력 정월 15일, 음력 5월 5일 년 2회 동제를 지내고 있다.

2) 전병모(全炳謨), 전술모(全述謨) 효자각(孝子閣)

조선 말기 평해 출신의 효자 병모, 술모 형제를 기리는 정려이다. 1894년(고종 31) 효행을 기리기 위해 형제에게 정려(旌閭)를 명하고, 각각 통정대부도정관(通政大夫都正官)과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추증하였다. 정려각은 평해읍 월송리에 있다.

5. 전설

1) 군무봉(軍舞峰)

굴니봉(堀泥峰)이라 하던 것을 조선조 숙종 대왕이 이곳을 순시할 때 이 봉(峰)을 보고 군사(軍士)가 흡사 춤을 추는 것 같다 하여 군무봉(軍舞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2) 꽃두들(花邱)

고려 초에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마을을 처음 개척하면서, 서쪽 일출봉(日出峰)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이 꽃잎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황씨(黃氏)와 정선 전씨(旌善全氏)가 야산(野山)을 개척할 때 진달래가 많고 아름답게 피어있다 하여 꽃두들이라 불렀다고도 전한다. 한자(漢字)로는 화구(花邱)로 표기한다.